

## 2018년 8월 18일 "(참된 공동체 3) 자기를 낮추신 그리스도 예수"(빌 2:5-11)

### <도입>

세계 인구 25억(총 인구 3분의 1- 카톨릭과 정교회 포함)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며, 예배와 성도의 교제와 섬김을 감당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크신 존재의 가치에 대해 놀라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님이 거부되면 강력하고 경건해 보이는 교회일지라도 무의미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닮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분의 무엇을 따라야 할까요? 그분의 낮아짐입니다. 이 낮아짐의 핵심에는 아버지께 대한 순종의 진수가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은 초대교회에서 널리 알려진 예수님의 찬양시인 것을 볼 때 당시 성도들은 예수님의 낮아짐이 어떻게 좋은 소식(복음)이 되는지 알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낮아짐의 진리를 살펴보겠습니다.

### [1] 복음과 복음을 사는 삶

교회의 참 의미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순종하는 참 아들됨을 사셨으므로 부활의 참생명을 얻으셨다는 사실 위에 있습니다. 복음은 스스로 또는 누구의 도움으로도 할 수 없었던 것을 예수님이 해주셨다는 사실에 근거한 소식입니다.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하나님 사랑을 몰랐던 우리에게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토록 세상을(사람을) 사랑하심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살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요 17:23**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사랑하심을 알게 하고 그 사랑을 만나게 하려고 주님은 오셨습니다. 또한 받은 사랑으로 어떻게 사랑의 길을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삶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복음에는 두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사랑을 내 삶에서 실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라도 사랑을 실천하려고 할 때 종종 실패하는 현실을 봅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 비관할 것이 아니라, 참 사랑의 실현은 주님을 닮아 자신을 낮춤으로서 가능하다는 사실을 배우면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 [2] 참사랑이 가능한 길 - 낮아짐

예수님이 아버지의 사랑을 입게 하려는 섬김의 삶을 사실 때 그 섬김의 특징은 낮아지심입니다. 상대보다 높은 위치에 있어도 그를 진실로 사랑하면 그의 자리에까지 기꺼이 내려갑니다. 그때에 사랑의 진심과 감동이 전해집니다.

나를 인도하고 이끌어 주는 분이, 만일 자신에 대한 프라이드가 강하고, 폐쇄적이고, 고압적이면, 날 사랑한다고 말한다 해도 그러한 태도가 걸림돌이 되어 사랑이 전달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 날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확신 된다면 그는 나의 자리까지 찾아 내려왔다는 뜻입니다. 사랑은 하향성의 길에서 진실이 통하게 됩니다.

주님은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방식을 가르치셨습니다.

**막 10:45**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빌 2:8**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예수님은 죽기까지 낮아지심이 비참하고, 잔인할지라도 그것은 실패의 길이 아니라 사랑의 승리의 길임을 아셨습니다. 세상방식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upside down 의 방식을 보이셨습니다.

**2:9**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높아지는 것이 성공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거짓이고 허구입니다. 하나님의 피조계에서는 인간 사이에 누구보다 높은 자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직위와 직분은 오히려 상대의 자리에 내려가 섬기라는 뜻입니다.

참 성공의 길은 크신 주님의 사랑받고 주님의 낮아짐의 길을 따를 때 열리게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사랑 받을 뿐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 가능해짐을 체험하기 때문에 행복해집니다.

### [3] 빌 2 장

2:1 이하에서 성도 안에는 격려와 사랑의 위로와 성령의 교제와 동정심과 자비가 있기 때문에 한 마음을 이루고,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라고 했습니다. 이런 삶의 특징은 예수님의 삶에서 직접 드러났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빌립보 교우들에게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더 명쾌하게 알게 된 것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삶의 이러한 특징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 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낮아짐의 인격을 배우라는 뜻입니다. 이 결과 2:9-11 진정한 승리가 선포됩니다. 이것은 또한 성도의 삶에서 참 사랑의 실현이 복음의 승리를 이룬다는 사실을 앞서 보게 하고 큰 소망을 갖게 합니다.

#### <맺음>

복음은 예수님이 참 사랑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보여주신다는 소식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예수님 안에서 보았습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실천할 때 중요한 것은 섬기고 낮아지는 예수님의 본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 만이 우리가 따라야 할 부활생명의 길임을 확신하고 기꺼이 이 길을 택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 <나눔의 질문>

1. 예수님의 복음이 무엇인가요?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나는 복음에 어느 정도 헌신하여 살고 있습니까? 복음으로 내 삶이 진정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3. 이 복음을 모르거나 못 누리면 교회와 성도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